

# 김승수 전주시장, 공약이행 '합격점'

### 독거노인 생활안전 시설 보훈수당 인상지급 등 완료

민선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이 매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전주시공약자문평가단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 까지 2016년 말 기준 민선6기 91개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임기 내 목표대비 77%의 높은 누진 추진률을 기록했다.

공약 자문평가단은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 검증한 자료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확인한 결과 민선6기 전주시가 추진해온 따뜻한 복지도시, 활기찬 전주경제, 창의교육 문화도시, 지속가능 생태도시 등 4개 분야 91개 공약사업 중 44개 사업이 완료되고 43개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어린이·청소년 해외연수 활성화 사업 △독거노인 생활안전시설 설치지원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보훈수당 인상지급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신설 지급 △365일·24시간 아동진료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공공형 생활임금제 도입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현장시정



지방행정동우회 정기총회

2017년 전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정기총회 및 시책보고회가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운영 △전주 시민청 신설 등 44개 사업이다.

또한 △장애인 행정도움미 확대 운영 △어르신 일자리 두배 사업 △특성화 거점 경로당 조성 △탄소소재 활용, 생산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바른 지역먹거리 실현을 위한 전주푸드의 생활화·체계화 △전주 생태역사문화의 길 관광자원화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 등 43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이날 중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공약사업 실천사항

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시정목표에 걸맞게 다올마당 운영과 설문조사, 공청회, SNS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각각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중시했다는 점이 돋보인다"며 "공약사업의 실질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끊임없이 고민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날 중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공약사업 실천사항

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약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완료사업의 수를 높여 나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이번 평가를 토대로 추진률이 저조한 사업은 재검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사업 추진전략 구축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현직경찰관 퇴폐이발소 출입 적발

전북 현직경찰관이 근무가 쉬는 날 퇴폐이발소에서 적발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퇴폐이발소에서 상의를 벗고 잠들어 있는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58)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익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은 성매매가 의심되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다

A경위가 퇴폐이발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을 급습해 적발했다.

불잡힌 A경위는 "술에 취해 이발소에 들어갔다"며 "돈은 썼으나 성매매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A경위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업무 B씨(57)등을 불구속 입건해 추가 범행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정읍시의회 의원, 사무장병원 운영하다 경찰 단속

현직 정읍시의회 시의원이 신용불량 의사의 면허를 빌려 설립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의 요양급여를 타내 경찰에 불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인 배모씨(66)와 그의 아들 조모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면허를 빌려가자 같이 병원을 운영한 의사 박모씨(68)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아들인 조씨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씨 등으로 부터 의사 면허를 빌려 정읍 신대인읍에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2015년 11월부터 1년동안 무려 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로 법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이다.

시의원 배씨는 이 병원을 설립하는 데 아들을 위해 자금을 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직 의사인 박씨 등 3명은 아들 조씨에게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에서 나온 수익이 배씨에게 불법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배 의원은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후백제 다올마당 회의 개최

### 후백제문화도시 조성 용역 등 다양한 안건 심의

올해 전주시 핵심정책인 '원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가 기존 조선왕조 중심에서 후백제 역사문화까지 확대된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왕조 관련 콘텐츠에 적극적인 발굴 및 복원을 통해 확보한 후백제 역사문화를 일체 전주 원도심을 더욱 다양한 색깔을 간직한 아시아 문화심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는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도심 100만평(약 330만㎡)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100가지 색깔을 가진 아시아의 문화심장으로 전주를 발전시킨다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시는 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2017년 후백제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2차 후백제 다올마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다올마당 위원들은 후백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후백제문화도시 조성 용역과 후백제 유적 추정지에 대한 지하물리탐사 등 후백제 관련 사업에 대한 다양한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보다 체계적인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보존 및 관련 콘텐츠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국가예산이 반영되도록 국립전주박물관과 관

련 중앙부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앞으로 시는 다올마당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후백제 관련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올마당 위원들은 후백제 때 쌓은 산성으로 알려진 전주 황방산 일원의 서고산성 발굴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다.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후삼국 중 가장 강성했던 후백제 역사복원을 통해 왕도(王都)로서 전주의 위상을 되살릴 계획"이라면서 "조선왕조 중심에서 후백제 역사문화콘텐츠가 추가 발굴되면 관광자원 다원화로 이어져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전북 고속도로 9지구대 교통안전평가 전국 1위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가 지난해 4분기 고속도로 교통안전평가 추진 평가에서 전국 11개 지구대 중 최고우수 지구대의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고의 고속도로순찰대로 선정된 제9지구대는 지난 3년간 사망사고 증감률과 고속도로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설개선, 정성평가 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고속도로순찰대의 영예를 안았다.

방흥 9지구대장은 "사망사고 제로화와 시설개선 및 홍보, 예방을 위한 단속에 혼신을 다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덕진구,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30명 모집

덕진구(구청장 박선이)는 2017년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30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소득 보충 등의 지원을 통해 노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덕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상으로 6일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초수급자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제외한다.

올해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사업의 참여자로 선발되면 오는 3월부터 11월(9개월간)까지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환경 취아지를 중심으로 주거 및 생태환경에 대한 정화업무를 실시하

고 월 30시간씩 활동 후 월 22만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김영재 기자

## 결혼이주여성 무료 건강검진

전주시가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올해 1,200여 만원을 투입해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11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미만 혼인귀화 여성과 지난해 건강검진 결과 유증상자, 국적 미취득 등의 사유로 의료보장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한 여성결혼 이민자 등 선착순으로 110명의 범위 내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기본검사 외에 고지혈증과 심전도, 간기능, B형간염, 폐기능, 갑상선, 자궁경부암 등 총 19개 항목이다. /김영재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